

늦가을에 공연된 두 편의 프랑스 연극 (시라노 드 베르주락), (서민귀족)

이용복, 숙명여대 강사

같은 시대적·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 두 편의 프랑스 연극 〈시라노 드 베르주락〉(11월 8~27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와 〈서민귀족〉(11월 10~20일, 게릴라극장)은 대극장과 소극장 공연의 차이를 실감나게 하였고, 무대를 채우는 힘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극장 선택은 작품의 성격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을이 저물어 가고 이젠 제법 쌀쌀한 겨울 바람이 느껴진다. 가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두 편의 프랑스 연극이 눈에 띄었다. 작가는 19세기 그리고 17세기로서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작품의 배경은 모두 17세기이다. 하나는 〈시라노 드 베르주락〉이며 또 하나는 〈서민귀족〉이다. 실제 인물로서 검객이자 시인이었던 시라노 드 베르주락은 〈서민귀족〉의 작가 몰리에르와 동시대 사람이며 몰리에르는 시라노의 작품에서 일부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시라노 드 베르주락〉의 작가 로스탕은 그의 작품을 낭만희극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몰리에르는 〈서민귀족〉을 코미디-발레라고 부르고 있다. 기존의 희극 양식에 춤을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작품은 모두 희극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시라노〉는 희극성과 비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빅토르 위고가 주장한 드라마의 개념에 더 적합한 작품이다.

두 작품은 그러나 매우 상이한 공간에서 공연되었다. 〈시라노〉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이라는 대극장에서, 〈서민귀족〉은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공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라노〉를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었으나 문제는 배우들이 큰 무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면 소극장에서 공연된 〈서민귀족〉은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음악과 춤 그리고 연기가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낭만희극 〈시라노 드 베르주락〉

예술의전당에서는 토월정통연극시리즈 여섯 번째 작품으로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1868~1918)의 〈시라노 드 베르주락〉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는 심각한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시라노를 로스탕이 너무 우스꽝스럽

게 왜곡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스탕의 시라노는 희극적이면서도 정의감이 있고, 검술에 뛰어나면서도 시적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다. 하지만 코가 큰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평생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고 살아가는 낭만적인 사랑의 순교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큰 코를 조롱하는 젊은이에게 다양한 희극적 표현으로 자신의 코를 묘사하는 그의 말씀씨에 반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의 방 창문 아래서 다른 남자를 대신해 읊어주는 한 편의 시와도 같은 그의 언어에 영혼이 떨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10여 년 전 프랑스 유학시절 브르타뉴 지방의 캄페르(Quimper)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우연히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열연하는 동명의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었던 필자에게 이번 예술의전당에서의 공연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 배우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무대화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때의 그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끼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예술의 전당에서의 이번 공연은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지는 못하였다. 우선 배우들의 연기가 토월극장의 넓은 무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지 무대 한쪽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번 공연에 참가한 배우들은 특별히 오디션을 통해 뽑은 배우들인데, 이들의 연기력이 인물들을 소화할 만큼 노련하지 않았거나 혹은 충분한 연습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인물들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것을 표현해 낼 줄 아는 연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배우들의 연기는 인물 특히 주인공이 갖고 있는 깊이를 충분히 느끼게 하지 못했고 따라서 관객을 압도하지 못했다. 차라리 소극장이나 중극장 정도에서 공연했으면 관객과의 교류가 더 잘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 프랑스 낭만희극 〈시라노 드 베르주락〉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여건이 허용되어 좀 더 많은 엑스트라들을 고용하였다면 사실적인 분위기를 더욱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극장이 배경이 되는 1막에서 그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극장인데 단지 중심 인물 몇 명만 무대 위에 등장함으로써 떠들썩한 극장의 분위기를 내지 못하고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무대를 배우들의 연기가 채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연기의 깊이 외에도 연기의 사실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배우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막에서 부상당한 시라노(최규하 분)가 별 무리 없이 타박타박 걸어오는 모습이나 숨을 거두는 시라

노를 안고 록산느(이안나 분)가 짓는 미소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또한 4막 이후 1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모나 행동에서는 연륜의 흔적이 별로 풍겨지질 않았다.

5막 내내 삼각형 형태의 비스듬한 단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재현을 지양하고 간소하고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무대는 그런 대로 효과적이었다. 이 비스듬한 단은 그 방향을 바꾸어 가며 여러 장소를 표현하였다. 즉 1막에서는 몽블뢰리가 연기하는 무대가 되고, 3막에서는 록산느가 사는 집의 베란다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2막과 4막 그리고 5막에서는 주로 등장인물의 등·퇴장의 통로로 사용되거나 극이 진행되는 장소의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입체적인 이 커다란 단으로 인해 배우들의 등·퇴장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장점이었다. 그리고 라그노의 빵집을 배경으로 하는 2막에서 삼각형 단의 벽에 새겨진 시들은 문학에 대한 라그노의 열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인상적이었다.

대작을 단지 10여 명의 배우가 하는 것은 분명 무리인 듯하다. 가스콘과의 전투 장면도 생략될 수밖에 없고 1막에서도 극장에 모인 군중들이 배제됨으로 해서 무대에는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배우들이 이 빈곳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극장의 선택은 작품의 성격뿐만 아니라 주어진 공간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배우들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우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미디-발레 <서민귀족>

서울시 극단이 고 이근삼 선생의 2주기를 맞이하여 그의 희극정신을 이어받고 한국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해 <제1회 명작 코미디 페스티벌>(11월 9일~12월 18일)을 개최하였고 여기에 다섯 편의 작품이 참가한다. 그 중에는 오영진, 이만희, 이근삼 등 국내 작가의 작품이 세 작품이 있고 외국 작가의 작품으로서는 버나드 쇼와 몰리에르의 작품이 있다. <서민귀족>은 바로 17세기 프랑스의 희극작가인 몰리에르의 작품이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위선, 탐욕, 잘난체 하기 등을 날카롭게 풍자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성격을 그리고 있는 몰리에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코미디-발레인 <서민귀족>은 부유하지만 어리석은 한 부르주아가 귀족이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르맹이라고 하는 이 부르주아는 귀족의 교양을 익히기 위해 춤과 음악, 검술, 철학 등을 배우고 이들 과목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돈을 챙긴다. 또 가난한 귀족 도랑뜨 백작은 그에게 돈을 빌리고 주르맹이 연모하는 귀족 부인에게 하는 선물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결국 주르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신분상승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주르맹은 딸 뤼실이 사랑하는 프레앙뜨가 귀족이 아니라고 결혼을 승낙하지 않고 결국 프레앙뜨의 하인 꼬비엘의 재치로 프레앙뜨를 터키의 왕자로 변신하게 함으로써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하게 한다. 이처럼 이 극은 한 부르주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 동시에 그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귀족과 주변 인물들을 풍자하고 있다.

손정우의 연출로 무대 위에 올려진 이번 공연은 원작의 5막을 12장면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모두 서울시 극단의 단원 혹은 연수단원들인 배우들의 연기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인물들의 성격을 구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중 주르맹 부인과 음악선생 역을 맡은

<시라노 드 베르주락>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우선 배우들의 연기가 토월극장의 넓은 무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 배우들의 연기는 인물, 특히 주인공이 갖고 있는 깊이를 충분히 느끼게 하지 못했고 따라서 관객을 압도하지 못했다.

강지연, 도랑뜨 백작과 철학 선생 역을 맡은 강신규, 프레앙뜨와 무용선생 역을 맡은 김신기 등은 1인 2역을 잘 소화해내었다. 주인공 주르맹 역을 맡은 이창직은 그의 통통한 외모부터 희극성을 나타내기에 유리하였으며, 그의 연기 또한 인물의 성격을 희극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 주르맹이 음악수업을 받는 장면이나 무용이나 검술수업을 받는 장면 등은 배우의 몸짓과 움직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배우들은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적절히 소화해내고 있다. 약간은 과장되기까지 한 주르맹의 어설픈 춤 동작 및 검술 동작은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었고 그 외에도 프레앙뜨의 하인 꼬비엘이 보여주는 체조와도 같은 동작은 극의 재미를 더해 주었다.

주르맹 씨 댁을 배경으로 하는 이 극의 무대장치는 무대 안쪽에 회랑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흰색 기둥이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무대 장치는 없으며 단지 고풍스런 의자와 촛대 등이 무대 가장 자리에 놓여 있다. 이 극에서 무대 장치는 큰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보다는 온몸으로 하는 배우들의 연기의 배경이 되고 있을 뿐이다. 주르맹이 입고 있는 원색의 우스꽝스런 의상 역시 웃음을 자아내는데 한 몫을 하였다. 다른 인물들이 입고 있는 제법 화려한 의상에서도 공들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상은 터키의 왕자로 변신한 프레앙뜨와 그의 수행원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화려해진다. 소극장 무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달리 화려한 의상은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주인공 주르맹도 터키식 의상으로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머리엔 깃털 달린 터번을 쓰고 있다. 이때 무대 안쪽의 벽에 지금까지 걸려있던 주르맹의 사진이 터번을 쓴 새로운 사진으로 교체된다.

외국 작품의 성공은 번역된 언어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서민귀족>은 정진수의 번역본을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구어체의 사용과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비어를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관객에게 친밀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철학 선생이 읊조리는 라틴어에 “비타 500”이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관객들의 폭발적인 웃음을 유발하였다. 이 극의 희극성은 이와 같이 인물의 어리석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의 사용,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와 의상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마지막 장면은 코미디-발레답게 흥겨운 춤으로 마무리되었다. 주르맹만 진실을 모르는 채 터키의 왕자 즉 프레앙뜨와 뤼실의 결혼이 성사되게 되어 이전까지 반목적인 입장에 있던 도랑뜨 백작과 도리멘느 후작부인까지 등장인물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흥겨운 춤을 추는 카니발의 세계로 화하게 된다.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서도 몰리에르는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임이 증명되었고, 몰리에르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 실제 인물 시라노의 숭고한 사랑과 풍부한 문학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외국작품을 공연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우리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표현할 줄 아는 배우의 기량과 또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친숙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극장의 선택도 중요한 요소이다. 위의 두 공연은 같은 시대적·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장 공연과 대극장 공연의 차이를 실감나게 하였고, 따라서 무대를 채우는 힘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